

여호수아 6:1-7

믿음의 걸음, 하나님의 기적

그 성을 돌라 / 그 길을 걷다

M: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합시다.

어느 순간 우리 삶에도 여리고 성 같은 문제가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견고한 벽처럼 도저히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상황, 끝이 보이지 않는 긴 어둠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말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마주한 난공불락의 여리고 성을 바라봅니다. 성벽 안에 갇힌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공격을 두려워하며 모든 문을 걸어 잠갔고, 성 밖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막강한 성벽 앞에서 작아지는 자신들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뜻밖의 명령을 주십니다. “너희는 그 성을 돌라.” 공격하라거나 무너뜨리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저 돌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명령에 실망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방법일까?’ ‘이렇게 해서 정말 승리할 수 있을까?’ 마음속에 의문과 불안이 밀려왔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저 한 걸음, 또 한 걸음 성을 돌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첫날은 주변의 성벽을 보며 두려운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성벽 위에서 비웃는 적군의 시선을 느끼며, ‘정말 이 방법이 맞을까?’라는 의심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루를 마치고, 다음 날 또다시 그 성을 돌았습니다. 소리 내지 않고, 묵묵히 걸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을 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눈앞의 문제를 바라보며 두려움에 떨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갈등하거나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길을 걷는 것입니다. ‘왜 이런 길을 걸어야 하는지’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길 끝에 우리를 위한 계획을 숨겨두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 성을 돌 때, 그들은 아마도 이렇게 고백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말씀하셨기에 이 걸음을 내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갈 때, 그들의 발걸음은 두려움에서 확신으로, 불안에서 평안으로 바뀌어 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일곱 바퀴를 돌고 나팔이 울려 퍼질 때, 그들은 외쳤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약속을 믿습니다!” 그들의 외침과 함께 여리고 성은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그들의 믿음의 걸음 위에 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지금 여리고 성과 같은 문제가 있습니까? 아무리 애써도 무너지지 않는 벽이 여러분 앞에서 있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의 생각과 다를 때가 많습시다. 하지만 그분의 계획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여리고 성을 돌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우리가 걸어갈 때마다, 그분의 손길이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수아 14:6-15

나이에 상관없이 뜨거워잡시다

기업을 요구 / 약속의 선물

M: 영적인 건강을 끝까지 유지합시다.

100세 시대를 접어들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은퇴준비에 대한 관심이 늘어났습니다. 어떻게 하면 은퇴 이후의 삶을 빠르고 잘 준비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많고 이와 관련된 글과 영상도 많습니다. 심지어 젊다는 MZ 세대에서도 빠른 은퇴를 꿈꾸며 자신만의 삶을 계획하는 모습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젊은 시절 어떻게 살더라도, 노후만큼은 자신을 위해 살고 싶은 것이 대부분 사람의 바람일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어떤 은퇴를 꿈꾸며 어떻게 노후를 준비하고 계십니까? 노장이었던 갈렙의 모습을 통해 좋은 인사이트를 얻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갈렙은 85세의 노인이었습니다. 그는 45년 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자신의 기업을 요구합니다.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갈렙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길에서 한 번도 벗어나지 않았습니
다. 그는 여전히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이루는 증인의 삶을 살고자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안정과 쉼을 바라는 나이에, 갈렙은 강한 적들과 싸워야 할 일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믿음으로 도전합니다. 그의 몸은 노쇠해졌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눈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마음은 전혀 시들지 않았습니
다. 그래서 그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외치며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의 가장 영적으로 건강했던 시절은 언제입니까? 누군가는 중고등학교 때였다고, 또 다른 누군가는 청년 시절이었다고 말할 것입니다. 결혼하고 자녀를 양육하며 바쁜 시간을 보낸 우리는 때로 그 시절을 그리워하며, ‘그때가 더 뜨거웠지’라고 회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과거의 추억에 머무는 삶을 살아가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신실한 마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마음은 오늘도 유효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용기 내어 도전해야 할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따르는 자에게는 반드시 그 약속대로 선물이 주어질 것입니다. 갈렙은 자신에게 주어진 땅을 차지하고, 그 기업을 자손들에게까지 물려주었습니다. 그 결과 그 땅에는 전쟁이 그치고 평안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갈렙은 원래 그니스 사람으로, 가나안 족속 중 하나였지만 개종하여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는 유다 지파의 지도자로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넘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노년에 이르러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고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 나아갔습니다. 멸망받아야 할 자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약속의 땅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는 자들에게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갈렙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임무를 한결같이 수행하며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 삶에도 하나님의 평안이 임할 것입니다. 그의 순종과 열정 앞에 무서운 아낙 자손들이 무너졌던 것처럼, 우리도 한결같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평안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여호수아 24:14-24

그 마음, 변함없기를

하나님만 섬기리 / 향하리

M: 하나님을 향한 마음에 결단의 돌을 세웁시다.

‘잡은 물고기에는 밥을 주지 않는다’는 말 들어보셨지요? 연애할 때는 상대방의 마음을 얻기 위해 정성을 다하다가, 막상 관계가 시작되면 열정과 성실함이 줄어드는 모습을 표현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떤가요? 처음과 지금 얼마나 차이하고 있나요?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큰 은혜로 약속의 땅을 얻었고, 그분의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은혜를 잊고, 마음이 변하여 이방 신들을 섬기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을 버리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이나 후나 언제나 같은 마음으로 그분을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진정으로 복된 삶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다짐합니다(16절). 하지만 여호수아는 그들의 결심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이방 신들의 흔적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말을 듣고 감동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진심을 담은 행동을 보십니다.

여호수아는 이방 신들을 완전히 제거하고,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돌리라고 단호하게 권면합니다(23절). “여러분, 마음속의 모든 우상을 치워버리고, 하나님께만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십시오!”라고 외칩니다. 이에 백성들은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마음을 하나님께 돌리겠다고 다짐합니다. 그 결단을 증거로 남기기 위해 큰 돌을 세우고, 그 돌이 하나님 앞에서의 약속을 기억하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돌을 볼 때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떠올리며, 하나님께만 마음을 드리겠다고 결심해야 했습니다.

이 본문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의 신앙 생활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걸어오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마음 속 깊은 곳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죄가 숨겨져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야 합니다.

이런 점검은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마음은 너무나도 연약하고 쉽게 변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의 고통에서 건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힘들어지면 애굽을 그리워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도 세상의 유혹에 쉽게 마음을 빼앗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결단의 돌을 세우십시오. 그리고 매일 그 돌을 바라보며 결심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결단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흔들릴 때마다 그 결단을 상기시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만 온전히 마음을 드릴 때, 우리는 진정한 평안과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사기 2:8-15

잃어버린 중심 되찾기

기억의 힘 / 흔들리는 중심

M: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갑시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방향을 잃은 배와 같았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기적을 기억하지 않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상실한 채 각자의 길로 흩어졌습니다. 그 결과, 그들의 삶은 혼란과 고통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의 삶에서도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삼아야 할까요?

여호수아와 함께한 세대는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기적과 은혜를 기억하며 살았습니다. 그들의 삶의 중심에는 항상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자, 그 기억이 점점 희미해졌고,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말았습니다. 기억이란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그 기억이 우리를 붙들고 흔들리지 않게 해줍니다. 혹시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쁘고 분주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들을 잊어버린 채, 눈앞의 걱정과 문제들만 바라보고 있지는 않나요? 한 번 멈춰 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분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삶에 어떻게 스며들어 있는지를 천천히 떠올려 보십시오. 기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자, 그들은 주위의 이방 신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섬겼던 바알과 아스다롯은 그저 눈에 보이는 우상이었지만, 그들의 마음을 빼앗아 갔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방 신과 같은 우상이 존재합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를 집어삼키는 것들이죠. 사람들의 인정, 끝없는 성공에 대한 갈망, 물질적인 풍요... 이 모든 것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고 우리의 삶의 중심을 흔들어 놓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무엇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가 나의 삶을 지배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에 계시지 않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또 다른 우상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돌아보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다면, 그 우상을 내려놓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을 모셔드리십시오.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분의 사랑을 되새기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마음에 새기십시오. 그 기억이 우리의 삶을 지켜줄 것입니다.